

10/6/2019

설교제목: 일곱 별과 일곱 금 촛대, 그리고 나

성경본문: 요한계시록 1 장 20 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that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of the seven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lampstands are the seven churches. (Revelation 1:20) NIV]

1. 서론

우리의 구원과 피난처가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는 신앙성장 캠페인을 합니다.

영어사전에서 Campaign 을 찾아보면, an organized course of action for a particular purpose. A series of military operations to achieve a particular objective.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떤 영적인 신앙성장의 주제를 놓고 온 교회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신앙성장운동을 매 년 봄철과 가을철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성장 캠페인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적지 않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직후에 영적인 돌봄의 기회를 얻지 못한채 오랜 기간 영적으로 방치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은지 3 년, 5 년, 10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 유아기를 못 벗어납니다. 자기 스스로 말씀을 먹을 줄 모릅니다. 헌신할 줄 모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인생의 참 되 목적과 주인을 모릅니다. 계속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예배에 겨우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신앙성장 캠페인을 통하여 자녀 됨, 제자 됨, 군사 됨은 물론 다양한 주제와 영역을 놓고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성장 캠페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성장 캠페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성장 캠페인을 통하여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강한 군사요, 온 세상을 향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하느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리스도에게 계시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계시의 내용을 다시 사도 요한에게 알려 주어 문서로 남기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 곧 자기가 본 모든 것을 그대로 모두 다 오류 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On the Lord's Day I was in the Spirit, and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like a trumpet, which said: "Write on a scroll what you see and send it to the seven churches: to Ephesus, Smyrna, Pergamum, Thyatira, Sardis, Philadelphia and Laodicea." (Revelation 1:10-11) NIV]

이 7교회는 모두 현재 터키 땅에 있습니다. 터키가 어디 있는가 하면,... 먼저 세계지도를 보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지점에 터키가 있습니다. 잘 보면 아프리카와도 교류를 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나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터키는 종교의 자유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전국민의 98%가 모슬림인 사실상의 이슬람국가이고 경제적으로 세계 20위 안에 드는 매우 부유한 국가입니다.



이 터키 땅에 7교회가 있었는데 그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교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요한 사도께서 본 것은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입니다.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The mystery of the seven stars that you saw in my right hand and of the seven golden lampstands is this: The seven stars are the angels of the seven churches, and the seven lampstands are the seven churches. (Revelation 1:20) NIV]

일곱 별은 일곱교회의 사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자'라는 의미는 원어가 [ἄγγελος-앙겔로스] 이고 그 의미는 '천사, 전령, 보냄 받은 자, (함축적으로) 목사'입니다.

따라서 본문을 이해할 때에 신학자 Zahn 이나 Hendriksen 같은 분은 '앙겔로이'를 해석할 때에 일곱교회에 보냄 받은 목사 혹은 감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교회를 책임지고 담임하여 섬기고 있던 목사 혹은 감독에게 너희의 잘 못 된 점을 깨닫고, 성도들에게 알리어, 잘 못을 회개하여 바로 잡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견해를 가진 신학자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 단어가 모두 73회 쓰였는데 거의 다 하늘의 천사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67회는 분명 하늘의 천사로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1장 20절 역시 하늘의 천사로 해석하는게 맞다고 말씀하는 신학자 분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오늘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각 교회를 붙들고 있는 '수호천사'가 있다는 의미로도 읽혀 집니다.

저는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일곱 별보다는 일곱 교회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3.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와 나의 신앙성장

먼저는 에베소교회입니다. 주님은 에베소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I know your deeds, your hard work and your perseverance. I know that you cannot tolerate wicked people, that you have tested those who claim to be apostles but are not, and have found them false. You have persevered and have endured hardships for my name, and have not grown weary. (Revelation 2:2-3) NIV]

잘 아시다시피, 에베소교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여행과 3차전도여행 때에 들어서 2년 동안 헌신적으로 사역한 교회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가 사역을 했고, 그 후에 디모데가 사역을 하였으며 나중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역을 했습니다. 게다가 사도 요한이 밧모섬에서 돌아와 마지막 생애의 남은 사역을 한 곳도 바로 이 에베소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에베소교회는 자연스럽게 7교회 중에서 교리면에 있어서 가장 권위가 있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와 인내를 알아주는 교회였고,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사역한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거 하시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첫 사랑을 버린교회>라며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물론 장점을 더 많이 언급하셨고,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다며 그대로 그냥 지내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Consider how far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things you did at first. If you do not repent, I will come to you and remove your lampstand from its place. (Revelation 2:5) NIV]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를 알고, 분별하며,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는 성도요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했던 첫사랑의 감동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모든 자리를 사모했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뭐든지 물불 안 가리고 했었습니다. 마치 첫사랑에 빠진 연인처럼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사랑 때문에 행동하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서머나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I know your afflictions and your poverty-yet you are rich! ...(Revelation 2:9) NIV]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부부 간에, 자녀로 인하여 혹은 건강문제로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애를 쓰에도 불구하고 어찌보면 대충 믿는 가정보다 정말 너무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로 그러한 분들에게 다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 나의 딸아,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네가 힘들어 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바로 거기에 있었노라. 사랑하는 나의 사람아! 힘을 내거라. 사실은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부요한 자임을 깨달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 하고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자 이제부터는 모든게 잘 될거야 하셔야 할 듯한데 다음과 같은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Be faithful, even to the point of death, and I will give you life as your victor's crown. (Revelation 2:10) NIV]

그런데 우리도 참 이상합니다. 어렵지? 이제부터는 모든게 잘 될거야 하시는 말씀보다 이상하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어떤 경우에는 더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충성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죽자 살자 충성해 보면 그 때에서야 왜 이 말씀이 정말 큰 격려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서머나교회에서 폴리갑 같은 유명한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세번째로 버가모교회에게 편지하셨습니다. 버가모교회를 섬긴 최초의 지도자는 요한 삼서에 나오는 '사랑하는 가이오 (Gaius)'입니다. 그리고 그를 뒤이어 '안디바 (Antipas)'라는 분이 교회를 섬겼습니다.

버가모교회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은 어차피 썩어질 것이니, 영만 깨끗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사상을 주입해 준 사람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명인 안디옥 사람-니콜라 (Nicolas)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니콜라 집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버가모교회의 성도들은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서 버젓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부당함을 지적하던 교회의 지도자 안디바를 그들은 오히려 고발하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한 마디로 버가모교회는 육적으로는 세상을 따라 살고, 영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세속화 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등지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가운데에서 사랑과 공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사람이기에 육신의 정욕을 좇아 사는 것은 누구나 어쩔 수 없다는 가르침은 거짓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죄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겨우 우리 육신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네번째로 두아디라교회에 편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I know your deeds, your love and faith, your service and perseverance, and that you are now
doing more than you did at first. (Revelation 2:19) NIV] 라고 하셨습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와 성도!
얼마나 좋은 칭찬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와같은 칭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또한 사데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I know your
deeds; you have a reputation of being alive, but you are dead. (Revelation 3:1) NIV]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같이 책망하시면 어찌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단 한 분 예수님뿐입니다.

정상적인 신앙은 죽은 자도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Ephesians 2:1) NIV]

하지만, 거짓 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살아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 사명도 없고, 아무 헌신도 없고, 아무 실천도 없고, 아무 은혜도
없는 신앙 그게 바로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교회에게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 I know that you have little strength, yet you 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 (Revelation 3:8) NIV]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작은 능력 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지켜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좇아 사는 선교사님, 성도님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빌라델비아교회처럼 칭찬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은 라오디게아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I know your deeds, that you are neither cold nor hot. I wish you were either one or the other! (Revelation 3:15) NIV]

이 말씀은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려거든 차리리 차거운 신앙인-불신자의 자리로 나가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라오디게아교회는 왜 이런 어정쩡한 신앙태도를 취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남보다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You say, 'I am rich; I have acquired wealth and do not need a thing.' But you do not realize that you are wretched, pitiful, poor, blind and naked. (Revelation 3:17) NIV]

돈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돈벌러 가야하는 시간에 단기선교도 갈 수 있고, 주중에 헌신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기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돈을 주신 주인을 몰라보고 자기 힘으로 버는 줄 알고 사는 경우 그 삶은 무너집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뜨거운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 뜨거운 신앙인으로 삼시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왔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을 뜨겁게 살다가 주님을 만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성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삽시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문도 **번역해 주세요**) 주님, 저희가 옳바른 교리를 알고, 분별하며,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은 수고와 인내를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지런하게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가 가장 부요한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날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게 도와 주시고, 사랑과 공의, 자비와 정의를 실천하며 살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에 있어서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나은 교회와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가 바로 저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이오니 늘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 밖에 없어도 믿음을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세지말을 사는 저희에게 하나님, 영적인 뜨거움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날을 뜨겁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말씀과 기도가 뜨거운 성도,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서.